

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대량사육법

배순도, 김현주, 박정규¹, 송유한¹, 박성태

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 식물환경과, ¹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

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의 농작물중, 콩 및 벼의 식량작물, 단감, 감귤, 사과, 키위 등의 과수에 노린재류의 다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다. 특히, 친환경농업, 다양한 작부양식 및 체계는 금후 노린재의 다발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.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우수한 흡즙능력과 뛰어난 이동성 등으로 콩 및 단감 등의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노린재라고 할 수 있다. 국내에서 월동하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특히, 성충의 수명이 매우 길어 연 2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생태, 생리 및 방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선 무엇보다 본 충을 생력적으로 대량사육하는 방법개발이 필수적이라 하겠다. 그리하여 본 충을 대량사육하기 위한 사육상자의 크기, 먹이종류 및 공급방법, 급수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. 사육상자(850×550×650mm)는 두께 10mm의 투명한 아크릴로 된 것으로, 좌우측면 및 후면의 각 전면에 망사(55mesh), 윗면 중앙에 400×250mm의 크기로 망사(55mesh)를 부착하였으며, 정면에는 투명한 아크릴로 미닫이 문(400×300mm)을 하였다. 먹이공급은 사각 플라스틱통(190×150×40mm)에 건조한 장유콩 1,000립을 넣은 것과 그린상토를 채운 백색사각통(110×110×120mm)에서 채배한 콩 식물체(V6~R5)를 이용하였다. 급수는 원형플라스틱통(지름 100mm, 높이 40mm, 두께 1mm)에 스폰지를 넣고 물을 채워 흡수하게 하였다.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온도조건 26~28℃, 광조건 16L:8D의 사육실에서 사육하면 사육상자당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1,500~2,000마리(약충 및 성충포함)정도 사육할 수 있다.